

마크로젠, 미국서 유전자 분석서비스 개시

바이오 벤처기업인 마크로젠은 8월26일 미국 메릴랜드에 위치한 현지법인에서 서정선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랩(Lab)서비스 출범식을 열고 유전자 분석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마크로젠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 분석 시장인 미국에 국내에서 쌓아온 유전자 분석방법과 운영시스템 관련 경험을 적용해 현지 연구자들에게 24시간 이내 분석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법인의 영업성과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유전자 분석서비스 지역을 중·서부 지역까지 확대하고 현지사업 분야도 DNA 칩, 유전자 변형 쥐 공급 등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8/26>